

[참고] 왜 「디지털 샌드박스(Digital Sandbox)」인가?

(1) What? : 「디지털 샌드박스」란?

- 「디지털 샌드박스」란, 핀테크 스타트업 등 참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·사업성 등을 모의시험(virtual test)하는 프로그램
- 영국 금융당국(FCA : Financial Conduct Authority)에서 '20.5월부터 「금융혁신 프로그램」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 중

※ 영국 금융당국(FCA) 「디지털 샌드박스(Digital Sandbox)」 개요

-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 (가상 데이터(synthetic data) 등을 통한 모의시험 기회 제공)
 - * 참여를 희망하는 94개 기업 중 30개 기업 선정하여 모의테스트 중
-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-민간의 공동 해법 모색 등도 추진
 - * 취약계층 금융지원,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강화 등

(2) Why? : 왜 필요한지?

- ① 「금융규제 샌드박스」만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 시험에 한계
 - 「금융규제 샌드박스」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,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, 사업화 이전 아이디어 검증에는 한계
 - 핀테크 입장에서, 본격적 사업화는 아직 조심스러운 참신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, 사업효과 등을 확인하는 수요 있음
- ②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수립의 “나침반” 기능
 -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서, 새로운 기술·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하고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
 - 디지털금융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의할 소통창구로도 활용

(3) How? :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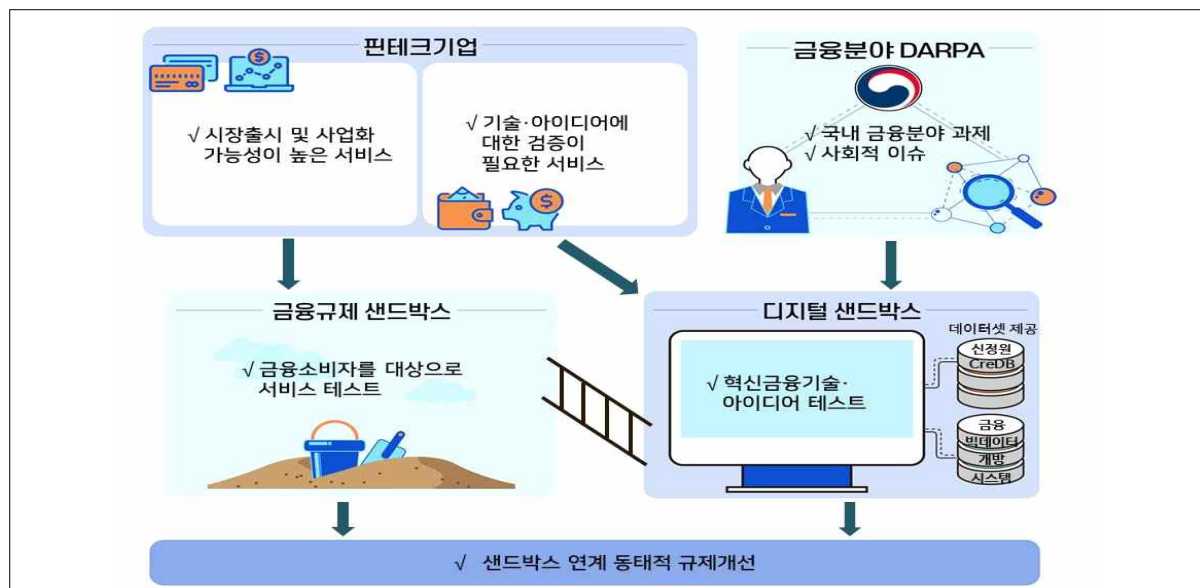
□ 금융권의 “실제 데이터”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의 혁신성, 사업성 등을 모의시험하는 시스템을 마련

○ 신청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인프라(「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」)를 통해 핀테크 기업은 기술·사업 적용결과를 시뮬레이션

□ 금융분야 주요과제*를 선정하고, 금융권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(금융분야 “DARPA***”)도 정기 개최

* 예 : 취약계층 금융포용,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, 이상거래 탐지 등

** 美 국방연구계획국(DARPA: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) : 민간부문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군사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



(4) For Whom? : 누가, 어떤 혜택을 입게 되는지?

① 핀테크 기업 :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하고,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음

② 정책당국 : 디지털금융 등 관련 다양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, 정부-민간 간 긴밀한 소통창구 마련

③ 금융이용자 : 취약계층,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정책효과 등이 입증된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 확대